**후지산의 ‘야마비라키’**

7월에 시작되는 후지산의 등산 시즌은 산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야마비라키 (개산) ’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얼어붙고 위험했던 겨울의 끝을 축하하고 그 후 2개월 동안 후지산을 등산하는 20,000명 이상 등산객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 - 요시다구치 등산로 ‘오미치비라키’**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의 의식은 신사 뒤편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요시다구치 등산로의 시작점에 있는 도리이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개산 전날인 6월 30일 저녁에 열리는 ‘오미치비라키’(길을 연다는 뜻) 제사에서는 신관이 이끄는 일행이 배전 앞에 매달린 지노와(띠풀을 엮어서 만든 커다란 고리)를 빠져나오며 몸을 정화하고 등산로의 시작점인 도리이 앞으로 나가면, 괴력으로 알려진 신 다지카라오노미코토의 분장을 한 가구라(신에게 봉납하는 음악과 춤) 공연자가 무거운 나무 망치를 사용해 등산로의 도리이를 잠그듯이 쳐진 밧줄을 때려 끊어냅니다. 처음으로 신사의 최고위 신관인 구지(宮司)가 도리이를 통과하고 다른 신관과 후지코 순례자가 그 뒤를 따르면 새로운 시즌의 개산이 집행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본전 앞에서도 의식이 행해집니다.

**덴구가 산에서 내려오는 고미타케 신사**

고고메(5부 능선)에 있는 고미타케 신사의 제사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에서 열리는 의식과 닮아 있지만, 고미타케 신사에서는 이 역할을 신이 아닌 산에 살면서 강력하고도 신비스러운 힘을 지니고 날개를 가진 생물 덴구로 분장한 2명이 실시합니다. 고미타케 신사 주변은 덴구가 지배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덴구가 도리이 사이에 쳐진 밧줄을 거대한 도끼로 끊어냄으로써 후지산을 개산하는 것입니다.